

못났든 잘났든 여러분만이 귀중한 것입니다

25면에서 계속

는 것을 내 주인공도 알고 있으니 어느 때 생겨도 생기겠지.' 하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저절로 나와야지 그게 강제적으로 집이 어디서 나오니까? 그러니 그렇게 마음으로는 걱정이며 근심이며 생각이 나는 것들을 자꾸 돌려놓으면서 이 육신은 부지런히 뛰어나신다면 일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사는 게 정말 허무한 걸까요?

☞ 얼마 전 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에 가 보니 왜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은지 정말 인생이 허무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사는 게 정말 허무한 걸까요?

☞ 그것은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좋겠네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 물건들이, 종이나 비품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헌 쇠든지 낡아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요. 종이도 그렇고. 그것이 재생해서 나가요. 많은 게 재생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금도 반지가 됐다가 또 가서 팔려면 금방으로 가져갑니다. 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도 재생이 돼서 다시 나옵니다. 귀고리도 나오고 팔찌로도 해서 나오고 반지로도 나오고, 이렇게 다른 물건이 돼서 다른 이름이 돼 가지고 나오죠. 곧 다른 물건이 돼 가지고 다른 이름이 돼서 나올 동안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자기 수술하는 걸 보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죽는 게 아닙니다. 재생해서 나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서도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최고의 고등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인간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 자체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대로입니다. 그 생명 자체의 근본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습니다. 의식 자체는 바로 영혼이라고도 하고 혼백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불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불성이 아니라 애집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즉 말하자면 우리가 기쁨 또는 운전수, 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허망하지 않다 하는 것이 웃이 허니까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괜찮거든요.

요. 그게 늙었다고 해서 이 웃이 험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뭐 흠 묻었다고 걱정할 거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웃 입는 거보다 헌 옷 입는 게 아주 좋죠.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늙어지면 뭐 허무하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허무하다는 소리 더 잘해요. 노인네들은 외려 덜합니다. 어찌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늙었다는 것이 이게 웃이 험했다는 애집이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쩌랴 이라고 말입니다. 참, 그 마음이 이해롭고 크면 이 우주 안에 그 마음이 짝 찾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으리까.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용돈 안 줄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허무하게 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거를 알아보고부터 나부터 알아야 할

☞ 그거는 자기 마음을, 그 영원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자기 주체를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있음으로써 주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자기는 속 빼고 '주님' 하고 바깥으로 찾거든요. 기도하고, 또 뭐가 잘못되면 해 달라고 하고, 또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할 때 내가 잘못해 놓고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 하면 그 죄가 감해질까요? 신부님이 대신 밥을 먹었다고 해서 이쪽에서 배가 부름까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 놓은 거 자기가 쳐리해야죠. 나도 한때에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벌여 놓고선 저 신부님한테 고하면 내 죄가 과연 사해질까?' 그게 의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톨릭교, 기독교, 불교 할 거 없이 모두 타의에서 구해요.

즉 말하자면 '주님' 하고 상대를 놓고 한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상대를 놓고 고하고 상

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복이라는 얘기도. 자신으로서 자기 주체를 먼저 알아야 상대성의 원리를 알고 또 상대성의 마음도 돌 아닌 도리를 알 수 있다. 생명의 평등한 거니까, 어느 거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알아서 내 이 마음의 대뇌로 통신이 된다면 모든 게, 즉 말하자면 시체말로 한다면 원자 속에서 입자가 나가서 조절을 하고 모든 거를 해 나가는데, 그걸 불가에서는 천백역화신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입자에서 모두 나가서 응신으로서 모두 조절해 주고 이력하고선 다시 그 입자가 원자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천차만별로 일어나는 도리를 하나도 모른다 이겁니다. 정신계는 계발을 못하고 물질계만 개발이 되니까 이 난동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야 난동이 안 나는데 정맥은 안 돌아가니까, 한쪽만 움죽거리니까 분란이 나죠.

한데 그렇게 거북한 생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모두를 다 벗어나서서 평온하게 사셔야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내, 내가 죽어서 태어날 때 또 그게 불는단 말입니다. 아주 좋잖아 좋잖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바로 업식입니다. 부부의 정자 난자를 받아서 본인의 영혼이 들어가서 삼합이 한데 합쳐지는데 그 영혼이 한데 합쳐지는 동시에 업식도 마저 거기 팔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 하나 받는 데에 몸속에 있는 모든 업식들도 다 거기 짊어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몸속에 다 짊어지고 나오요. 아주 이 몸뚱이 집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이 업식들도 그냥 같이 자라죠.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운전수한테 '차를 잘 끌고 다니게 하고, 위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넣어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를 끌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부숴버리지 않고 조심해서 잘 끌고 다니는 것도 운전수요, 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넣어 가지고 다녀서 사고 안 나게 하는 것도 바로 운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아주 약한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서더라도 '아, 저 사랑하고 나하고도 돌이 아니다. 이 생명의 근본도 돌이 아니요, 마음을 내기 이전도 돌이 아니다. 그러니 다 마음을 밝게 해서 그저 한마음이 되게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운전수에게 맡겨 놓으세요. 그리고 증오심을 버리고요. 그런 것도 거기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해 줬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즉 말하자면 그냥 '나는 당신의 시자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남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잘못했다고만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의욕하게 같이 불이 들어와서 같이 밝은 데서 살게끔 당신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에 그 사람 가슴에 불이 들어와서요, 맥의 마음과 아주 하나가 돼서 나중엔 사과를 해요. 그래서 더 절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 근본, 자기 운전수를 믿고 거기다 맡기는 걸 공부해 보세요. 아셨죠?

나부터 귀중한 줄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아마 자기는 영원한 자유인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니다.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 자기부터 믿어야 하고, 자기부터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런 도리를 모르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이런다면 안 됩니다. 지금 노인네들이 이 도리를 알면 정말 머리가 허얇게 새었다가도 검어질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고 '야 참, 이런 도리로구나.' 하고 그냥 기쁜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마, 당장 밥 먹을 때 죽 그릇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에서 숟가락 몇 개를 꽂아 놓고 "잡수세요." 하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걸 먹으면서 싱겁병걸할 거예요. 절대 허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세요.

왜 사회는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는지...

☞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흑인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날이 갈수록 종교인은 늘어나는데 왜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을 볼 때, 또 미운 사람을 볼 때, 원수진 사람을 볼 때에 '야,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하고 돌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이 꺾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돌이 아닌 깨달음에 미움도 없고, 넘쳐서 고움도 없고 항상 평등하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를 먼저 알아야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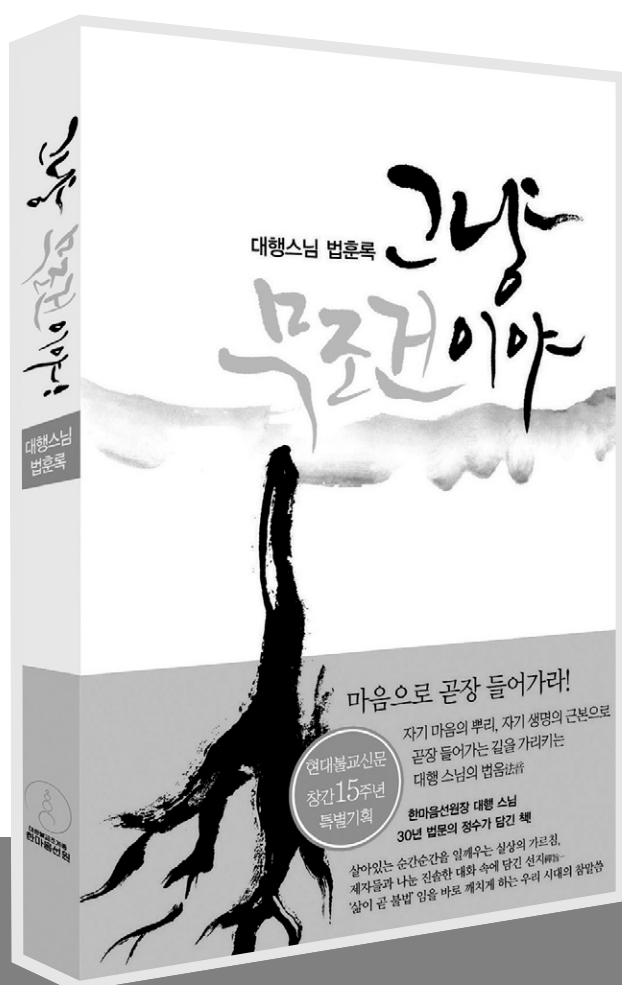
있었어요.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을 볼 때, 또 미운 사람을 볼 때, 원수진 사람을 볼 때에 '야,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하고 돌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가락이 꺾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돌이 아닌 깨달음에 미움도 없고, 넘쳐서 고움도 없고 항상 평등하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체를 먼저 알아야겠죠?

상대방이 잘 안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 저는 누가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꾸만 잘 안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니 저도 괴롭습니다. 스님께서 그런 마음이 안 나게 좀 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 그거야 내가 해 줄 바가 못 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면 몇천 년 몇만 년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한 생을 살 뿐인데 왜 남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語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림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 본문 중에서